



- 한국건강관리협회의 해외 건강검진 현장 속으로 -

몽골 학생건강검진을 통한 학교보건 및 건강증진에 검진사업단 파견

글 · 사진 정 후 근 (국제협력과)

우리 협회가 한·몽골 건강증진사업(Korea-Mongolia Collaboration Program for Health Promotion)의 일환으로 2003년에 처음으로 사전조사단을 파견한 이후, 몽골 학생건강검진을 시작한지 벌써 4년째가 되었다. 이 사업은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유엔개발계획) 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아 진행되었다.

올해는 2007년 9월 29일(토)부터 10월 6일(토)까지 국제

보건의료분야의 인도주의적 사업을 실천하고, 협회의 건강검진 및 증진에 대한 경험과 기술 등을 제공함으로써 양국가간 우호증진 및 협회 위상제고를 위하여 이우철 사무총장, 윤정하 검진관리본부장, 전동하 서울1지부 내과전문의, 김혜경 건강증진연구소장, 협회 직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검진사업단을 파견하여,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남서쪽으로 43Km(차량으로 1시간 정도) 떨어진 터우 아이막(우리나라의 지방郡) 쿠문학교 학생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❶ 터우 아이막 중심가

한·몽골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김진사업단은 9월 29일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밤늦은 시간에 울란바토르 징기스칸 공항에 도착하였다. 밤늦은 시간에 도착한 몽골의 첫 느낌은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의 건조한 느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 겨울이 멀지 않았음을 실감케 했다.

몽골 측의 사업 협조기관은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와 유사한 보건부(MOH) 산하 국립보건개발센터(NCHD:National Center for Health Development)로 4년여 동안 사업 대상기관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우리 대표단 일행은 10월 1일에는 몽골 보건부 오토곤볼드 차관을 만나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하여 상호 적극 협조하기로 협의하였고, 국립보건개발센터(NCHD) 강당에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차 사업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기초 검사장비 지원에 대한 기증식을 가졌다.

10월 2일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남서쪽으로 43km 떨어진 터우 아이막으로 가는 길 양쪽에는 나무 한그루 없는 초원만이 펼쳐져 몽골의 대초원을 실감할 수 있었고, 몽골인의 강한 자존심과 대륙적 기질의 바탕을 보는 듯 했다. 길 양쪽으로 펼쳐진 초원에는 유목민들이 초원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데 용이하고 이동성이 좋은 거주용 천막인 게르가 군데군데 있었으며, 게르 중앙에 있는 조그마한 굴뚝에서 뚝뚝 나오는 연기는 우리나라 시골의 저녁 무렵과 같았다.

초원 위에는 한가로이 건조한 풀을 뜯어 먹고 있는 소나 양, 말들이 많았으며, 초원에 흩어져 풀을 뜯고 축사로 돌아 올 때는 우두머리를 따라 일렬로 서서 이동하는 모습과 초원을 달리는 말을 보면서 징기스칸의 기상을 느

❷ 몽골의 초원

낄 수 있었다.

최근에 도시 인근의 현대화된 시골 가정 유목민들은 풍력발전기나 태양열발전기, 아니면 석유발전기를 가지고 전기를 번갈아 켜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등 전기 불을 사용한다. 그러나 방목지에 있는 유목민들은 지금도 취학연령의 아이들에게 가축을 돌보게 하기 위해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한다. 이들에게는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생활의 가장 큰 즐거움으로 어디든지 들고 다니며 날씨 예보나 태풍 정보 등을 듣는다고 한다.

몽골의 여름인 6~8월 사이에는 울란바트로행 비행 티켓을 사기 힘들 정도로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현지에는 한국 식당이 상당히 많으며, 물가가 매년 배 이상 오르고 있어 국민들의 불만이 늘어가고 있다고 했다. 실제 3인 가족이 하루나 이틀 먹을 수 있는 소고기 1kg은 800트루크에서 최근 3,000트루크까지 올라 서민들의 주식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다.

터우아이막 쿠문학교 에르테네체체 교장을 만나 환담을 하는 중에 지난해 우리 협회에서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저체중 학생이 많아 금년부터 급식실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우리의 조그마한 힘이 몽골 학생의 건강증진에 변화를 주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몽골 도시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교육열의가 대단하다. 전 인구의 21.4%인 482,000명이 930개의 교육기관과 허가되지 않은 사설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초·중·고에 해당하는 중학교에 418,300명, 대학교에 40,400명 등이 학문을 배우고 있다고 한다.



우리 검진사업단은 쿠문학교 2, 6, 8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전동하 서울1지부 내과전문의는 학생들에 대한 자상한 진찰과 상담을 하였고, 사무총장은 검진현장에서 채혈과 진찰, 심전도를 실시하는 어린이를 안내하면서 총감독을 하였다. 또한, 건강증진연구소장은 학교보건 전문가로서 현지 학교 실정에 대해 관심이 많아 검진이 끝난 학생을 지도하면서 간식을 나눠주기도 하였다. 검진현장에서 만난 사무총장은 본인 스스로 할 일을 찾아 적극적으로 검진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움을 주었다. 시끄럽고 정신이 없는 우리나라의 학생검진과는 달리, 몽골 학생들은 청순하고 조용한 편이었으며, 채혈을 거부하는 학생도 적었다.

검진기간 동안 한국에서 의료진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인근 지역주민 중 혈압이 높은(수축기 측정불가/이완기 170) 32세 여성이 찾아와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여 진찰 및 심전도 검사를 해 주었고, 더 이상 처방을 할 수 없어 우리 대표단을 안타깝게 만들었다. 몽골 사람들 가운데 가장 흔한 병은 신장염과 고혈압, 피부병 및 결핵 등이고 아이들은 늘 폐렴에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 아마 이 모두는 육류를 주식으로 하는 식습관과 주위 환경, 건조한 기후 등과도 관련이 있는 듯 했다. 그밖에도 학교 선생님께서 지난해 자녀를 검사하였는데, C형 간염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한국건강관리협회의 건강검진이 최고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금번 검진사업단은 총 566명(쿠문학교 학생 및 교직원 등)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검진결과를 국립보건개발센터(NCHD)를 통하여 몽골어로 번역해 쿠문학교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초검사 장비 및 기자재, 구급함키트, One-step B형 간염시약 및 예방백신, 일반의약품, 기생충약품 3천명 분, 축구공 등을 10개 학교에 지원하고 아울러, 보건계몽사업을 위한 교육비도 지원하였다.

검진이 모두 끝난 다음날에 국립보건개발센터(NCHD)에서는 우리 검진사업단 일행을 울란바토르 서남쪽으로 20분정도 거리에 있는 징기스후레라는 조그마한 휴양지로 초대하였다. 그 곳의 입구에서 징기스칸 기마단이 우리 일행을 환영하였고, 쿠문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점심식사를 하는 식당으로 찾아와 깜짝 이벤트로 몽골 민속 음악과 무용 등의 공연을 준비하여 우리를 감동케 하였다. “부모님 은혜” 및 “고향의 봄” 등의 우리 노래를 들려주어 검진으로 지친 사업단의 피로를 한순간에 풀어주었다. 학생들의 눈은 초롱초롱하고 맑았으며, 너무도 아름답고 예쁜 학생들이었다.

건강검진을 하는 학생 중에는 한국말을 더듬더듬 조금씩 하는 학생도 있었는데, 몽골에서도 한국의 TV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하였다고 한다. 특히, 허준, 장금이,



● 쿠문학교 예술단

겨울연가, 김두환 등이 대단한 인기를 누렸고, 현재도 김두환 복장과 품을 흉내 내는 젊은이가 있다고 하니 한류 열풍이 강하고 건조한 대륙성 기후를 뚫고 몽골 국민들의 생활 속에 들어가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현재 울란바토르에는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가 여러 곳 진행되고 있었고, 꿈틀되며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날씨는 매우 건조하고 먼지가 많아 일행은 모두 입술이 말라 립글로스를 사서 발라야만 했다. 또한, 강한 햇볕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여성들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다. 몽골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생활력이 강하고 멋쟁이가 많아서 인지 상점에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옷이 많이 진열되어 있었다.

몽골에서는 아무리 물건을 많이 산다고 해도 깎아 주거나 덤으로 서비스를 주는 법이 없으므로 애석해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이 아주 많이 몰려드는 곳에 갈 때는 도둑을 맞기가 쉬우니 돈 간수를 잘해야 하고, 그들과 부딪힌다 해도 화를 내거나 신경질을 낼 경우 화를 입을 수도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현지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마트(UB 마트)나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한국 식료품(라면, 김치)도 구입이 가능하다.

몽골의 밤하늘은 별이 쏟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하여,

우리 일행은 내심 기대를 하고 밤늦게까지 하늘의 별을 보기 위하여 잠을 설치지만 울란바토르의 밤거리에 먼지가 많아서 인지 우리가 기대하던 별은 보이지 않았고, 쏟아지는 별들의 무리도 만날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 검진사업단은 실망하지 않았다. 몽골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멀리까지 날아온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린 학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하늘의 별로 남아 있어 일행은 다음에도 몽골에 별을 만나러 와야만 할 것 같다는 자긍심을 가졌다.

10월 5일 금요일, 오후부터 내린 비로 인하여 아침에 일어나보니 온 세상은 하얗게 덮혀 있었고, 몽골의 첫눈 덕에 우리의 비행기는 당초 예정보다 3시간이나 지연되어 일요일 새벽 3시까지 공항 대기실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다.

우리 협회에서는 2008년에 고비(사막)지역의 학생검진을 마지막으로 몽골학생들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하여 학교보건 및 건강증진의 가이드라인을 제언할 예정이며, 몽골 건강증진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협회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 등이 다른 저개발 국가에 대한 민간외교사업으로 활성화 되어 세계를 향해 지속적으로 발전해가는 협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징기스칸 국제공항을 떠났다. 🌈